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작업 본격화

참여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에 기획조정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권오갑 과학기술부 차관은 최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사회구축을 위해 국과위 운영위원회 산하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 전문위원회를 통합, 기획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조정전문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과학기술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0일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조직을 구성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개념 및 비전을 정립하고 범부처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각종 정책을 논의하게 될 기획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아래에 설치했다. 기획위원회는 재계·학계·연구계 등의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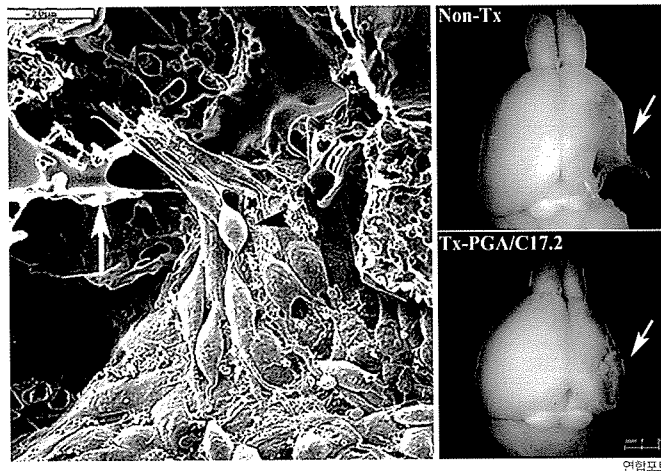
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개념·비전·철학 등을 정립하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과 기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위원회 밑에는 기초과학 인력분과위, 지방과기진흥분과위, 과기혁신체제분과위, 국가전략기술분과위, 과학문화분과위 등이 설치된다.

'생명공학연구지원센터' 만든다

정부는 1천억원을 투입,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대행해 주는 공사(公社)형태의 '생명공학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분야 연구성과들이 상용화하려면 식약청의 까다로운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독성, 임상실험과 자료 제출을 대행해 주는 국내 민간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가 연구개발과 산업화간의 가교역할을 맡기 위해 생명공학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센터를 식약청 내부에 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공사형태의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민간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족한 임상실험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임상실험센터를 설립할 경우 의약품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땃줄혈액서 줄기세포 배양



땃줄혈액에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를 얻는 작업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성공했다. 생명공학벤처 히스토스팀(대표 한 훈 가톨릭의대 교수)은 지난 5월 27

일 뇌졸중과 협심증 등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를 땃줄혈액에서 분리 및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 교수는 "5년간 1백회에 이르는 반복실험을 통해 1백 종류의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줄기세포는 6개월 동안 52번 계대배양(세포를 분리해 다시 배양하는 과정) 후에도 계속 증식했으며 조골(造骨)세포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확인됐다. 줄기세포는 뼈와 연골, 신경, 근육 등으로 분화되기 전인 미성숙 세포로 난치병 치료에 유용하다. 방법은 버려질 땃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생명 윤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도 조직적 합성 항원(HLA) 검사를 통해 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기술혁신 세계 5위권

2002년 현재 한국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들을 제치고 기술혁신도에서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특허전문조사 업체인 캐리서치가 특허건수 및 파생되는 연관 특허건수, 그리고 상업화 정도를 가중 평균해 '기술혁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천 점을 넘어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기술혁신 선두그룹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캐리서치는 "지난 20년간 한국은 전자 및 기계분야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1위는 지난 해 8만6천659개의 특허권을 신규취득, 기술혁신 지수 10만 525점을 얻은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캐리서치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85년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일본은 3만점을 획득, 2위에 올랐으며, 대만은 전자분야의 강세 등에 힘입어 지난 97년 이후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국가지정연구실 54개 선정

과학기술부는 최근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산·학·연 과학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전략연구개발사업인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체로 2003년 54개 연구실을 선정했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 1월 국가기술지도(NTRM)의 주요 기술과 수행중인 국가지정연구실의 기술을 상호 분석,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기술군(群)을 선정·공모한바 있다.

이 결과 모두 134개 기관이 584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과기부는 3~5월 3개월 동안 산·학·연 전문가 275명이 참가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한국화학연구원, (주)다음기술,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대 등 54개 산·학·연 연구소(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연구실은 연구실당 연간 3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받게 되며 선정된 지 2년 뒤 단계 평가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연구실은 강제 탈락된다.

간질 원인유전자 국내 첫 발견

대전 을지대학병원 손성일(신경과) 교수팀은 간질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지난 5월 29일 밝혔다. 돌연변이 유전자 발견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질이 일어나는 원인을 연구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 교수는 아간 전두엽 간질증세가 있는 한 가족의 유전자 등을 분석해 20번 염색체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 유전자가 돌연변이된 것을 확인했다. 아간 전두엽 간질은 잠을 자다 증세가 나타나며, 상염색체 우성유전을 하는 드문 간질증세다. 손 교수는 "간질환자의 유전적 검사가 보편화하면 초기에 발병 원인이 유전인지 후천성 인지를 밝힐 수 있다"며 "임신중인 유전적 간질환자가 검사를 받으면 태아의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러 과기협력방안 마련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본격적인 과학기술 협력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과 러시아가 우주기술 협력협정안에 가서명하는 데 이어, 수소에너지 공동개발, 기초과학분야 협력 등 다각적인 한·러 정부간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과 러시아가 우주기술 협력협정안에 가서명하는 데 이어, 수소에너지 공동개발, 기초과학분야 협력 등 다각적인 한·러 정부간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자료를 활용한 수소에너지개발 분야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분야 등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세계적인 쿠르차토프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수소에너지개발을 위한 특수 원자료를 공동 생산하는 것도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한·러 두 나라는 지난 5월 23일 우주기술협력협정에 가서명했으며,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두 나라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